

일인칭 복수 대명사의 절차적 의미와 관련성

최인지

(숙명여자대학교)

Choi, In Ji. 2012. The Procedural Meaning of First Person Plural Pronouns and Relevanc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2). 171-197. This paper aims to look at what the first person plural pronouns 'we' and 'wuli' mean in English and Korean, respectively, the information that they encode and the effect that the information has. This paper also shows how the hearer uses that encoded meaning to interpret the pronouns in utterance contexts. I shall be adopting the framework of relevance theory (Sperber & Wilson, 1986/95) and demonstrating that pronouns are fundamentally procedural in nature, enco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inferential process that the hearer should use. Guided by the overarching principle of relevance, it is argued that the hearer resolves reference assignment pragmatically as a part of the relevance-theoretic comprehension procedure, drawing information from many possible sources in the process.

주제어(Key Words): 일인칭 복수 대명사(first person plural pronoun), 관련성(relevance),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relevance-theoretic comprehension procedure)

1. 서론

담화 상황에서 대명사가 사용될 때 청자는 지칭 가능한 여러 대상 중 청자가 의도하고자 한 특정 지시 대상을 식별해내야 한다. 이러한 지시 할당은 의미론적 측면과 화용론적 측면, 심리언어학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져 왔으나 지시 할당의 과정이나 중의성 해소 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며 화자가 지시하고자 한 대상을 어떻게 청자는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화용론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시 할당이란 화자가 어떠한 명제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인지하는 발화 해석 과정의 일부라고

간주하는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의거하여 화자가 대명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정보를 언어적으로 부호화하고 그 정보가 갖는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면 (1)에서 비서가 사용한 ‘we’가 지시하는 대상은 전화를 건 사람과 비서 자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 Caller: Can I speak to The President?

Secretary: Pardon? Can you call me back please? I think we have a bad connection.

그렇다면 (1)에서 ‘we’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명사 ‘we’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라는 명칭 때문에 화자들의 집단을 지칭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자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지칭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보통명사들이 갖는 의미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erson’의 경우 ‘a human being regarded as an individual’²⁾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만 대명사 ‘we’의 경우에는 화자와 복수를 나타낸다는 특징 외에는 다른 의미를 떠올리기 어렵다. 또한 (1)과 같은 예에서 ‘we’는 화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집단(전화를 받은 비서와 전화를 건 사람)을 가리키는데 쓰이는 것으로 보아 ‘we’가 의미하는 것은 발화 맥락에서 ‘we’가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Wilson & Sperber(1993)는 관련성 이론에서 의미 간의 이분법을 적용해 대명사는 절차적 정보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은 더 이상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Powell(1998)과 Scott(2008)에서 다양한 지표적 표현들의 절차적 의미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we’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대명사 ‘we’가 갖는 절차적 의미를 관련성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며 관련성 원리와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에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we’가 사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 일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의 경우에는 지칭 대상의 구분을 통한 다양한 쓰임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남기심, 고영근 1985; 김정남 2003; 윤재학 2003; 정경옥 2005; 이한규 2007). 특히 윤재학(2003)과 이한규(2007)에서는 내집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언어와는 다른 특이한

1)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We will always love you”라고 외치고 있을 때, ‘we’는 이 문장을 외치고 있는 화자들의 집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발화는 일반적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쓰임은 ‘we’의 주요 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 이 의미는 Oxford Dictionary에서 발췌하였다.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각기 다른 사용 조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재학(2003)과 이한규(2007)의 연구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한규(2007)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일인칭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단수의 개념과 복수의 개념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일인칭 대명사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의미를 각기 다른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성 이론의 철차적 의미를 통해 통합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Nunberg(1993)의 ‘we’에 관한 고찰

Kaplan(1989)은 의미를 내용(content)과 특징(character)으로 구분하였다. 특징은 언어적 의미를 뜻하며 내용은 표현된 명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대명사에 적용시키면 대명사의 내용은 표현된 명제를 구성하기 보다는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대명사를 포함한 발화는 단 한가지의 진리 조건만을 갖게 된다(Kaplan, 1989). 그러나 Nunberg(1990, 1993)는 대명사의 의미가 지시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명사가 명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단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적 의미로 부호화되는 특성 외에 다른 특성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Nunberg(1993)는 ‘we’가 의미하는 것이 발화의 화자 혹은 화자들에 의해 구현된(instantiated) 집단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러한 ‘we’의 해석은 두 가지 과정, 즉 지연된 과정(deferred process)을 거치게 된다고 말한다. 첫째, 청자는 화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하며 둘째, ‘we’가 사용됨으로써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분간해 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Nunberg(1993)는 ‘we’의 의미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일인칭과 관련된 것으로 발화의 화자 혹은 화자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Nunberg는 이를 지시 요소(deictic component)라 부르며 발화가 발생한 맥락에서 수행되는 기능이라고 본다. ‘we’는 ‘I’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데 두 표현 모두 특정 담화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 의해 발화되기 때문이며 ‘we’와 ‘I’는 동일한 지표 즉, 화자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Nunberg는 ‘we’가 지칭하는 집단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청자 포함 여부에 따른 구분 즉, 청자 포함의 ‘we’와 청자 배제의 ‘we’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하고 있지 않다.³⁾ 이와 관련하여 영어처럼 한 가지 형태의

3) 영어를 포함한 유럽어족에서는 ‘we’와 같이 한 가지 형태의 대명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자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Mandarin Chinese나 Chamorro, Tamil, Lavukaleve 등의 언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표현을 통해서 구분한다.

일인칭 복수 대명사만이 존재하는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구분을 하고 있는지 4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Nunberg(1993)가 제시하는 두 번째 ‘we’의 의미 구성 요소는 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 요소는 분류 요소(classificatory component)라 불리며 복수와 유생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we linguists’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we cars’라는 표현은 차를 의인화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Nunberg(1993)가 말한 세 번째 ‘we’의 의미 구성 요소는 관계 요소(relational component)로 ‘we’의 지표는 반드시 그 해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소풍에 가기에 앞서 부모의 동의서를 걷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갖고 오지 않은 학생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을 때 그 학생은 ‘We haven’t signed the form yet’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인데 이 학생의 대답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이 발화에서 ‘we’가 지칭하는 그룹이 되기 때문이다.

Nunberg(1993)는 ‘we’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we’를 포함한 발화의 해석 과정에서 모두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청자는 ‘we’를 듣고 화자를 찾은 다음 그 화자를 통해 화자에 의해 구현된 복수와 유생의 의미를 갖는 집단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화용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와 유생의 의미를 갖는 집단 중 어떤 것이 화자가 의도한 집단인지 결정할 때 화용적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unberg가 제시한 ‘we’의 의미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Grimberg, 1996; Hedley, 2007; Powell; 1998, Recanati, 1993).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 (한 야구 팬이 야구 경기장에서)

We are the Champions!

(2)에서 화자가 의도한 ‘we’의 지칭 대상은 화자가 응원하는 야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화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Grimberg(1996)는 이를 Nunberg의 관계 요소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청자는 (2)의 발화에서 ‘we’를 통해 화자를 파악한 뒤 그 화자를 통해 우승자들의 집단을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론을 통하여 화자가 의도한 집단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Nunberg(1993)에서는 (2)와 같은 발화가 일반적인 지연된 과정이 적용된 경우가 아니라 술어 이전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다. 우승자라는 특성이 화자로부터 화자가 응원하는 야구단으로 이동된 것이다.

또한, 화자가 집 공사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3)의 예문이 발화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맥락에서 ‘we’의 해석은 화자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기 보다는 그 집단이 사는 집을 의미한다.

(3)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We are in yellow brick.

이러한 ‘we’의 의미 해석은 (2)의 경우처럼 화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Nunberg가 주장한 유생성의 특징도 갖지 않는다. 화자가 의도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 청자는 우선 ‘we’를 통해 화자를 파악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 화자를 통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파악한 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 그 집 자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Nunberg는 지표와 지시 대상의 구분을 통해 ‘we’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는 Fauconnier(1994)가 제시한 유인(trigger)과 대상(target)의 구분과는 다르다. 지표는 유인이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Recanati, 1993). (3)에서 ‘we’의 지표는 화자이지만 ‘we’의 유인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대상은 그 집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Nunberg는 (3)의 경우에도 (2)와 마찬가지로 지연된 과정이 아닌 술어 이전이 적용된 것이라고 본다.

Nunberg(1993)는 ‘we’를 해석할 때 (2)와 (3)과 같이 술어 이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연 지칭이 수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와 (3)의 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we’의 의미 해석에는 의미적 과정과 화용적 추론의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Powell(1998)이 제시한 것처럼 ‘we’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두 가지 과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첫째, ‘we’를 해석할 때 지연 지칭이 적용되며 그에 따른 해석은 Nunberg가 말한 복수와 유생성, 관계 요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지연은 해석 과정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강제적 단계로 의미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강제적인 의미적 과정이 적용된 후에는 화용적 지연이 적용된다. 3절에서는 이러한 의미 해석 과정을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Nunberg(1993)가 제시한 것처럼 술어 이전과 지연 지칭이라는 각기 다른 과정을 상황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성 원리와 철차적 의미,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에 따라 ‘we’의 해석 과정을 일관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2.2 한국어 ‘우리’의 선행 연구

한국어 일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지시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을 말한다. 김정남(2003)은 복수를 ‘우리’가 갖는 의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며, 화자 외에 ‘우리’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청자 혹은 청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라고 말한다.

(4) A: 어제는 너한테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B: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 잘못이 아니야. (김정남 2003: 263)

(4)에서 A가 청자인 B를 ‘너’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A가 말한 ‘우리’에는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은 화자 이외에 A와 B 둘 다 모두 아는 사람이며 대화 맥락에서 B는 ‘우리’에 포함되는 인물이 본인이 아닌 제삼의 인물임을 인식하고 ‘너희’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김정남(2003)은 청자를 배제하고 복수 인물을 지칭하는 ‘우리’의 용법을 국어의 매우 특이한 용법으로 보고 이러한 쓰임은 때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5) (A와 B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A: 나는 점심으로 스파게티를 즐겨 먹어.

B: 우리는 촌스러워 가지고 스파게티 같은 거 못 먹는다.

(김정남 2003: 264)

(5)는 A와 B가 대화를 나누는 일대일 대화 상황이다. (5)에서 B의 발화에 나오는 ‘우리’에 A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지만 복수의 의미를 갖는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이 B 이외에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김정남(2003: 269)은 (5)에서처럼 ‘우리’가 쓰이는 것은 청자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를 함께 지시하는 ‘비지시적’ 용법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내용 속에 화자까지 “적극적으로 지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자의 지시는 배제하지 않는지, 또한 언제 화자를 지시하는 것 역시 배제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윤재학(2003)은 명사와 함께 쓰이는 ‘우리’의 분석을 김정남(2003)과는 달리 복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내집단 개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6a)-(6b)의 경우, ‘우리’를 일인칭 단수 대명사 소유격 ‘내’의 복수형으로 보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내집단 의식을 반영하는 어휘로 설명하고 있다. 즉, 내집단과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어휘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6c)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내’가 쓰여야지 올바른 경우도 있다.

(6) a. 우리 남편, 우리 딸아이

b. (선생님이 학생인 민희에게)

우리 민희 참 열심히 하네.

c. *우리 신발, *우리 돈, *우리 입

윤재학(2003)은 이에 대해 수식받는 명사의 지시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관형어 ‘우리’와 ‘내’의 사용 조건을 다르게 설정한다. 관형어 ‘우리’는 내집단과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어휘로 보고, ‘내’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것임을 나타내는 독점적 관계의 경우에 사용되는 어휘라

고 설명한다.

이한규(2007) 역시 내집단을 이용하여 '우리'를 분석하였으나 윤재학(2003)과는 달리 화용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다양한 쓰임을 분석하였으며, '우리'가 화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화자를 포함한 집단 구성원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화용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화용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한규(2007)에 따르면 '우리'는 내집단을 나타내는 대명사이고 집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단수 지칭을 요구하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수 지칭으로 우선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5)의 경우에는 '우리'가 B 이외의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지칭해야 하는 맥락이 전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단수 지칭으로 쓰였다고 말한다. (5)의 '우리'는 구성원이 한 사람인 극단적인 형태의 내집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한규의 주장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내집단 개념을 표현하는 일인칭 단수 및 복수 대명사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명사 '우리'의 경우 화자를 파악하고 그 화자로부터 구현된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지칭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철학적 의미만을 갖으며 구체적인 지칭 대상은 주어진 말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한규(2007)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에서도 일인칭 단수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관형어으로써 '우리'와 '내'가 모두 쓰이는 경우는 화자와 명사의 지칭 대상이 독점적 관계를 갖지만 그 지칭 대상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잠재적 속성이 있을 때이다. 반면 '우리'만 사용 가능한 경우는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속성을 지니는 안 될 때이며, '내'만 가능한 경우는 지칭 대상이 배타적으로 화자만의 것임을 나타내는 독점적 관계를 맺을 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6a)에서는 '우리'와 '내'가 모두 가능하며, (6c)의 경우에는 '내'만 가능하다. (6b)의 경우에는 화자와 독점적 관계를 의미하게 되면 민희는 선생님과 친족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화자를 지칭한다면 화자와 민희 사이에 독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허용되지 말아야 하지만, 화자 지칭 기능 없이 오로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화용적 기능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한규(2007)의 이러한 분석을 관련성 이론을 적용하여 인지 화용적 관점에서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단수 대명사와 복수 대명사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기도 하는 복수의 구성원을 파악하도록 하는 철학적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 항목으로써,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에 따라 주어진 맥락에서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 '우리'의 지칭 대상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쓰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3. 대명사와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

3.1 대명사의 의미

Sperber & Wilson(1986/95)의 관련성 이론은 Grice(1989)의 화용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Grice가 주장한 협동의 원리나 일련의 대화 격률은 불필요하다고 보며 관련성이 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발화 해석을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관련성을 찾고 어떤 것이 관련이 있는지 지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은 의사소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발화에는 언어적으로 부호화된 정보와 화합되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이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자는 관련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해석들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다른 모든 해석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가능한 해석만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관련성이란 인지(또는 맥락) 효과(cognitive/contextual effects)와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의 함수이다. 인지 효과는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가 인지 시스템 내에 이미 설정된 가정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⁴⁾ 처리 노력이란 처리된 어떤 새 정보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석을 산출하기 위해서 인지 시스템이 지출해야 하는 노력을 말한다. 관련성은 인지 효과나 처리 노력이나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입력을 처리함으로써 갖게 되는 인지 효과가 크면 클수록 관련성도 더욱 크며, 투입된 처리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입력의 관련성은 더욱 작다. 발화는 인지 효과를 갖게 될 때 관련성을 갖게 되며 화자는 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가치가 있는 발화를 말하고자 한다. 즉, 화자는 가능한 가장 관련된 것을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청자는 최소한의 처리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문맥상에서 그 발화를 처리하고자 한다.⁵⁾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7) We are wearing raincoats.

(7)의 예문이 참이라면 대명사 ‘we’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비를 입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이 발화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we’의 지칭 대상을 고려해야 하는

4) 관련성 이론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인지 효과를 가정한다. 첫째, 입력이 맥락 함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 둘째, 이미 설정된 가정을 강화시키는 것, 셋째, 이미 설정된 가정을 반박하고 제거하게 만드는 것이다.

5) 물론 모든 발화가 아무에게나 관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청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 반한 맥락 가정을 갖는 발화의 경우에는 청자가 갖고 있는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리게 되며 이 경우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발화를 하게 될 것이다.

것이지 ‘we’라는 표현 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7)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그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포함하며, 그 지칭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추론적 화용적 처리(*inferential pragmatic processing*)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we’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관련성을 얻게 되는 경우는 맥락에서 화자가 의도한 유일한 지시 대상을 청자가 선발해 냄으로써 청자가 갖고 있는 적합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we’라는 대명사가 전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2.1에서 살펴보았듯이, Kaplan(1989)은 내용과 특징이라는 속성으로 어휘 항목을 설명한다. 이를 대명사에 적용시키면 내용은 개체(*individual*)를 말하며, 특징은 주어진 맥락에서 이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규칙을 말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8) We do not exist.

Kaplan은 ‘we’가 이 발화의 화자를 포함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의미한다면, (8)과 같은 문장은 필연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화자(혹은 화자를 포함한 구성원들)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8)의 문장이 참인 경우도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Wilson & Sperber(1993)는 Kaplan이 주장한 내용과 특징이라는 구분을 두 종류의 부호화된 의미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발화 해석에는 두 가지 방식의 과정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언어 신호를 개념표시(*conceptual representation*)로 해독해주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그 신호의 의도된 의미를 추론하기 위한 인지기능(*cognitive faculty*)과 관련된 과정을 말한다. 즉, 발화 해석에는 해독(*decoding*)과 추론(*inference*)의 두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두 단계는 근본적으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발화 해석 단계에 상응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간의 이분법은 Blakemore(1987)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의미는 문장의 논리 형태에 개념을 부여해서 의미 표상의 성분이 되는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와 어떤 개념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화용적 추론이 진행되는 방식에 제약을 가하는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로 구분된다.⁶⁾

6) Blakemore(1987)에서는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의 구분이 각각 진리 조건적 의미와 비진리 조건적 의미를 대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ilson & Sperber(1993)와 Ifantidou-Trouki(1993)는 ‘seriously’, ‘frankly’같은 표현들이 비진리 조건적이지만 개념적 정보를 부호화 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confidentially’같은 표현은 개념적 의미를 갖지만 진리 조건에 기여한다. Wilson & Sperber(1993)는 대명사가 지시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며 이 지시 대상은 진리 조건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이후 Blakemore(2002)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개념적 의미가 비진리 조건에 기여할 수도 있고, 절차적 의미가 진리 조건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다시 (8)의 예문으로 돌아와서, ‘we’라는 표현이 화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라는 개념을 부호화하는 것이라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지시 대상도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Kaplan이 주장한 것처럼 이 문장은 항상 거짓이지만, 만약 ‘we’가 그 발화의 화자를 확인한 뒤 화용적 추론 과정을 통해 그 지시 대상을 도출해냄으로써 그 대상을 확인하게 해주는 지시(instruction)를 부호화한다고 본다면 (8)의 문장이 항상 거짓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대명사가 표상적(representational)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연산적(computational)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대명사 자체가 표현된 명제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의 지칭 대상이 그 성분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발화에 쓰인 대명사가 지칭하는 지시 대상을 별 어려움 없이 빠르고 쉽게 찾아낸다. 이러한 특징은 청자가 모든 지칭 가능한 대상을 찾아낸 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서 가장 좋은 대상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명사가 절차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선택하게 된 후 절차적 의미는 문장에서 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즉, 대명사 자체가 아닌 대명사의 지시 대상이 문장의 진리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⁸⁾

언어에서 추론적 과정에 제약을 주는 표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성 이론에서는 관련성에 관한 의사소통적 원리(the 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화자가 의도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청자는 어떤 발화가 그의 주의를 끌 정도로 관련성을 띤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화가 화자의 관심사와 능력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가정한다. 관련성의 정도는 의도된 인지 효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처리 노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도된 해석을 확인하는 절차를 부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7)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홈페이지 개설을 앞두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We do not exist yet’이라는 글만 보이게 되어있다고 하자. 이 경우 Kaplan의 주장처럼 ‘we’가 화자를 포함한 집단의 구성원(즉, 지금 보고 있는 홈페이지)이라는 개념을 의미한다면 이 문장은 반드시 거짓이다. 그러나 대명사가 절차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보자면 ‘we’는 그 문장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자라는 개체를 통해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찾으려 하는 것이며, ‘we’가 지칭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홈페이지의 완성된 첫 번째 화면 및 그 안에 포함될 다른 웹페이지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문장은 거짓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8) Powell(1998)은 개념을 개체적 개념(individual concept)과 일반적 개념(general concept)으로 구분하였다. 개체적 개념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를 말하고 일반적 개념은 어떠한 개체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을 뜻한다. 인지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념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람들이 각각의 개념이 개체의 표상이라고 믿는지 아닌지의 여부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각각의 개체적 개념이 한 개 이상의 일반적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화자는 ‘my lovely son’에 대해 개인적 접촉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개체적 개념을 갖고 있으며 ‘lovely’와 ‘son’과 같은 일반적 개념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대명사는 개체적 개념으로 인도해주는 절차를 부호화하며, 그 외 부분은 화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최소의 처리 노력으로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화자의 목적과 일치한다. 절차적 표현들은 의도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일련의 가능한 추측들을 제한함으로써 청자의 처리 노력을 감소시켜주며 발화의 전반적인 관련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절차적 의미를 부호화하는 표현들은 청자를 우선적으로 의도된 맥락과 인지 효과로 인도해서 의도된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⁹⁾

3.2 대명사 ‘we’의 절차적 의미

대명사가 절차적 의미를 부호화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 ‘we’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Nunberg(1993)에 따르면 보통 ‘we’가 표현하는 의미는 화자들의 집단을 뜻하기보다는 어떤 발화의 화자나 화자들이 속해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뜻한다. 이러한 Nunberg의 주장을 재해석해보자면 ‘we’를 해석할 때 화자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그룹을 파악하는 것도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해석 과정을 인지적 관점에서 보자면 청자는 ‘we’라는 표현을 사용한 화자로부터 ‘we’가 의도하는 지시 대상은 복수이며 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분명한 정보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가 의미하는 절차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9) ‘화자라는 개체를 찾은 다음 그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찾아라’

이러한 절차적 의미는 청자에게 특정 대상을 암시해주며 그 외 사항들은 청자가 화용적으로 추론할 여지를 남겨둔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0) We are off tomorrow.

청자는 (10)에 사용된 ‘we’를 해석하기 위해서 화자를 파악한 다음 그 화자로부터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집단에 누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는 맥락으로 결정된다. 만약 화자가 계속해서 발화를 이어간다면 이어지는 발화에 따라서 ‘we’의 구성원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0)에 이어 화자가 (11)의 발화를 말한다고 하자.

(11) Jack will make his acting debut tomorrow, so we will all go and see him. Oh, but Jenny will stay because she has a lot of work to do.

9)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after all’, ‘but’, ‘so’ 같은 담화 표지어들이 절차적 의미를 부호화하는 언어 표현의 대표적인 예이다(Blakemore, 2002).

화자는 (11)의 발화를 통해 (10)에서 ‘we’의 구성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추측 가능한 인물인 Jenny가 사실상 그 집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자는 (11)의 발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그에 따라 ‘we’의 해석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관련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화용적 추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의미의 본질 역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에서 살펴보았던 예 중에서 Nunberg가 지연된 지칭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we’의 발화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12) (한 야구 팬이 야구 경기장에서)
We are the Champions! (=2)

Nunberg에 따르면 화자는 ‘we’의 의미 해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12)에서 우승자는 화자가 아닌 화자가 응원하는 팀일 것이다. 이는 화자를 파악한 다음 화자가 속한 물리적인 맥락, 예를 들어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응원하는 팀의 야구 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해 쉽게 파악가능하다. (12)의 발화에서 ‘we’의 지칭 대상에 화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we’가 표현하는 절차적 의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명사 ‘we’는 청자로 하여금 추론의 시작점을 제공하고 결국은 최소한의 처리 노력으로 화자가 의도하고자 한 지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절차적 의미의 기능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12)에서는 화자가 ‘we’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응원하는 야구팀에 대한 유대감, 소속감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유대감, 동질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w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우리’는 유대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이에 대한 관련성 이론적 분석은 4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3)의 예처럼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we’가 지시하는 대상은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가리키기 보다는 화자를 포함한 집단이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킨다. 이렇게 ‘we’를 해석하는 것은 Nunberg가 제시한 ‘we’의 의미 구성 요소 중에서 화자를 포함하는 것과 유생성을 띄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13)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We are in yellow brick. (=3)

청자는 (13)에서 ‘we’를 통해 화자라는 개체를 찾은 다음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우리 가족’ 같은 집단)을 파악한 뒤 맥락과 화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지시 대상 즉, ‘우리가 사는 집을 추론할 수 있다. 화자는 ‘we’의 지시 대상이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대상

이라고 생각하고 ‘we’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we’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화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개체 혹은 개체들이 있다는 것을 청자에게 알리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 개체 혹은 개체들이 그 맥락에서 가장 관련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3.3 대명사 ‘we’의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

Carston(2002)이 기술한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에 따르면 첫째, 인지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처리 노력을 요하는 방향을 따르고 둘째, 관련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될 때 중단하라고 말한다. 발화는 화자가 예상한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때 관련성을 갖게 되며 이 방향은 청자도 가정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즉, ‘we’의 해석은 그 지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처리 노력을 요하면서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accessible) 혹은 가장 두드러진(salient) 대상을 찾아내게 되면서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에는 접근 가능성이란 개념이 쓰이는데, 이러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쓰인다는 비판도 있어왔다(Breheeny, 2006). 그러나 Wilson은 관련성 이론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제시된 이론이 아니며 이러한 정의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한다.¹⁰⁾ 접근 가능성이란 개념은 맥락을 전제로 관련성의 원리와 이해 절차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해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화자와 청자의 측면에서 모두 인지 효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으며 특정 해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특정 맥락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Grice(1989)에서는 의사소통된 것(what is communicated)을 구성하는 것으로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함축된 것(what is implicated)을 구분하는 반면 관련성 이론에서는 외축(explicature)과 함축(implicature)으로 구분한다. Sperber & Wilson(1986/95)이 지적하듯이 Grice가 제시한 체계에서는 화용론이 말해진 것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함축에 적용되는 화용론만 다루어져 왔다.¹¹⁾ 앞서 보았듯이 담화 해석에는 해독과 추론의 두 단계가 있다. 해독이 진행될 때 논리 형태는 지시체 해소, 중의성 해소, 자유로운 의미보충 등의 화용적 추론을 통해 의미 보충이 된다. 달리 말하면, 해독만으로는 완전한 명제 형태를 생성할 수 없으며 논리 형태에 대한 추론적 전개를 필요로 한다. 즉, 외축이란 발화의 불완전한 개념 표상인 논리 형태에서 나온 의미를 부분적으로 맥락에 의존해 발전시킨 것으로 언어로 입력된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 화용적으로 추론된 의미이다. 이렇게 완전한 명제 형태로 발전된 논리 형태는 다음 추론적 과정의 입력이 되어 함축이 될 수 있다.¹²⁾ 즉, 화용

10) Wilson과의 개인적인 토론에 의한 것임.

11) Bach(1994), Recanati(1993, 2001)에서는 말해진 것에 화용적 추론이 개입되어 말해진 것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았다.

적 과정은 외측과 함축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 B가 사용한 ‘we’의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자.

- (14) A: Would you like to join us tonight?
B: John and I have a plan tonight. We can't make it.

B의 발화를 들은 A는 (15)와 같은 추론적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15) a. 화자는 다음의 논리 형태를 갖는 문장을 발화하였다: [we can't make it]
b. 화자의 발화는 최적으로 적합하다. (관련성에 대한 가정)
c. 화자의 발화에서 대명사는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개체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관련성을 얻게 될 것이다.
d. The speaker and John can't make it. (‘we’의 절차적 의미: 화자라는 개체로부터 구현되었으며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은 화자와 John을 가리키며 이는 최소한의 처리 노력을 요하고 충분한 인지 효과를 도출하게 되어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게 됨)

대명사 ‘we’의 절차적 의미가 갖는 주요 기능은 문장의 외측을 복원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발화에 의해 표현된 명제에는 ‘we’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we’의 지칭 대상이 포함된다. 또한 지칭 대상을 할당하는 과정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we’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가장 접근 가능하며 잠재적인 지칭 대상만이 남을 때까지 가능한 지칭 대상들을 제한하게 하는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국어 대명사 ‘우리’

4.1 ‘우리’의 관련성 이론적 분석

한국어 ‘우리’는 지시하는 대상이 둘 이상의 복수인 1인칭 복수 대명사이며 단수를 지칭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 ‘나’와는 대립된다. 그렇다면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2.2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에서는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이 화자 외에 청자 혹은 청자를 포함한 집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를 배제한 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어의 ‘we’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우리’ 역시 특정 구성원이라는 개념을 부호

12) 외측과 함축의 구분은 Carston(200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를 확인한 다음 그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확인하여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지시 대상을 할당하는 절차적 의미를 부호화한다고 볼 수 있다.

(16)에서 화자가 지칭하는 ‘우리’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자는 화자를 파악한 뒤 화자가 구성원인 집단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포함된 발화를 해석할 때 최소한의 처리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청자만 있는 담화 맥락에서는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에 화자 및 청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16) (화자와 청자가 1:1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청자를 배제한 채 다수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우리’의 쓰임을 살펴보도록 하자.

(17) (A와 B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A: 나는 점심으로 스파게티를 즐겨 먹어.

B: 우리는 촌스러워 가지고 스파게티 같은 거 못 먹는다. (=5)

B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한 지시 대상이 복수라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청자인 A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처리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 효과를 내는 발화 맥락 속에서 발화를 처리해야 하며 ‘우리’의 지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자를 파악한 뒤 그 화자가 의도한 집단의 구성원을 확인하며, 그 집단이 화자가 실제로 의도하고자 한 지시 대상이 맞는지 파악해야 한다. 맥락 혹은 배경가정(background assumption)은 단순히 앞서 발생한 언어적 텍스트나 발화가 발생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의도한 해석에 이르도록 해주는 가정의 집합을 말하며 문화적·과학적·백과사전적 지식, 상식,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공유하는 정보 등을 포함한다. 발화가 발생하면 그 발화와 관련된 맥락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청자가 실제 발화를 해석할 때 이 모든 맥락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주의를 끄는 맥락 중 최소한의 집합만을 선택하고 관련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면 다른 맥락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마친다.

A의 발화로 미루어보아 B의 발화에 나오는 ‘우리’에는 청자인 A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가 복수의 집단을 지칭한다면 B를 포함하여 다른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A와 B만 속한 대화 상황에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B는 발화를 하면서 현재 대화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신과 동일한 성향을 갖고 있는 특정 인물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막연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사용은 화자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16)의 ‘우리’와는 쓰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17)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는 ‘우리’ 대신 ‘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이러한 ‘우리’의 사용이 한국어에서 허용되는 것일까? 이한규(2007)에 의하면 한국인은 사회에서 혼자 존재하는 것을 꺼려하며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그 집단 안에서 안도감을 찾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강한 집단주의적 성향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필요와 가치를 강조하며, 언어생활에도 내집단 의식이 반영되어 내집단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대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윤재학(2003)은 (17)과 같은 ‘우리’의 사용을 총칭적 기능을 갖는 쓰임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를 내집단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속한 내집단의 속성은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모두가 갖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함으로 총칭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17)에서 B가 의도한 바는 자신이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함일 것이다. 그러나 B의 발화에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한 것은 ‘나’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extra cognitive effect)를 얻기 위해서이다. 청자인 A는 B의 발화가 그의 능력과 선호도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B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대화 상황과 가장 관련 있는 맥락을 선택해서 ‘우리’를 해석하고자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면 (16)의 경우처럼 청자는 화자를 파악한 뒤 그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에 화자를 포함하여 청자가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17)의 경우에는 맥락 속에서 화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성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청자는 다른 접근 가능한 맥락을 찾아서 발화를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처리 노력(extra processing effort)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나’를 포함한 발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¹³⁾ 이때 청자가 한국의 강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화자와 비슷한 성향을 갖는 막연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배경가정을 통해 발화를 해석한다면, A에 의해 구현된 집단의 구성원에 화자 외에 누가 포함되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화자의 취향을 집단이라는 속성을 빌어 표현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B가 전달하고자 한 의미는 (18)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이때 (18)에서 얻을 수 있는 인지 효과를 직접적으로

13) (17)의 ‘우리’의 사용과 비슷한 사례로 영어에서 단독 저자의 글인데 ‘we’를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글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we’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자가 한 명인데 ‘we’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독자는 ‘we’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저자를 파악한 다음 그 저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파악하며, 맥락에 따라 이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저자와 같은 분야에 속한 사람들 혹은 그 글을 읽는 독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글을 쓴 저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I’가 더 적합할 수 있으나 ‘we’를 사용하게 되면 ‘I’를 포함한 발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we’의 사용은 저자와 같은 분야에 속한 사람들 간의 유대감 혹은 독자와의 유대감을 표현할 수 있다.

(18)을 발화함으로써 얻는 것보다는 (17)의 B의 발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이다.

(18) 나는 촌스러워서 스파게티 같은 것 못 먹는 사람들 중 한 명이야.

그러나 청자인 A가 B의 의도와는 달리 문화적 배경지식보다는 일대일 대화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B가 속한 그룹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라 보고 해석을 마친다면 B에 대한 A의 답으로 (19)와 같은 발화도 가능할 것이다.

(19) A: 또 누가 스파게티 못 먹는데?

하지만 이한규(2007)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17)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집단을 반영하는 표현으로써 화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¹⁴⁾ 이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17)의 예는 발화가 발생한 맥락((17)에서는 일대일 대화 상황)보다는 발화 해석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화자가 의도한대로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서 청자는 ‘우리’의 절차적 의미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처리 노력의 길을 따라서 해석 가설들을 테스트하는 관련성 이론적 이해 절차에 따라 주어진 맥락에서 최적의 관련성을 갖는 ‘우리’의 지칭 대상을 찾아내야 한다. 청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는 (17)의 A, 즉 B의 청자가 밝힌 취향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의 취향을 설명하는 것임을 파악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2 ‘우리’+명사의 사용

‘우리’는 명사 앞에 사용되면서 지칭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유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20)의 경우 ‘우리’가 쓰이게 되면 ‘우리’ 뒤에 나오는 명사, 즉 ‘남편’이 지칭하는 사람과 화자와의 유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내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에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과 구성원들끼리의 친밀감을 가정하기 때문에 내집단 구성원으로서 화자가 ‘우리’의 수식을 받는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친근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20) 우리 남편은 운동하는 걸 좋아해.

14) 이한규(2007)는 (17)에 쓰인 ‘우리’가 구성원이 한 사람인 극단적인 형태의 내집단을 나타내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의 예시라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리’는 복수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복수 대명사라고 보며 (17)의 예와 같은 쓰임은 한국적 집단주의의 특징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속성을 빌어 개인의 성향을 표현함으로써 내집단을 반영하는 화용적 사용의 예라고 본다.

(20)의 예를 살펴보자면,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은 부인이 여러 명이라서 쓰인 것이 아니라 화자와 남편간의 유일한 관계가 맺어진 경우인데 쓰인 것이다. 즉, (20)의 경우에는 ‘내’가 쓰여야 하는데 ‘우리’가 쓰인 것이다. 이한규(2007)는 이러한 ‘우리’의 쓰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의 혼인관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자에게만 남편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지만 가족이라는 내집단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아들, 동생, 아버지 등)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화자가 (21)을 발화해야 하는데도 (20)을 발화한 이유는 (21)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인지 효과를 위해서이다.

(21) 내 남편은 운동하는 걸 좋아해.

청자는 (20)의 발화를 듣고 ‘우리’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화자를 찾은 다음 그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의 구성원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뒤에 나오는 명사 ‘남편’이 부호화하는 개념적 의미는 혼인을 하여 화자의 짝이 된 남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이 여러 사람들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청자는 여기서 발화 해석을 멈추지 않고, 화자의 발화가 최적으로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발화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요하게 되지만 ‘내’가 쓰인 발화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게 된다. 화자만의 남편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만 표현하려고 했으면 ‘내’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청자가 갖고 있는 ‘남편’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들 중에서 (20)의 발화에 가장 접근 가능한 가정을 찾게 만든다. 이때 청자가 (22)와 같은 맥락 가정을 발화 해석에 적용한다면, (23)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22) 남편은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 형 등의 관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다.

(23) 우리 남편은 내 남편이며 내 남편의 아버지의 아들이며 내 남편의 어머니의 아들이며 내 남편의 아들의 아버지이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의미 해석 과정은 (22)와 같은 맥락 가정을 찾도록 하는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은 (21)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23)을 직접 발화하는 것보다 (20)을 발화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며, ‘우리’를 사용하게 되면 ‘내’를 사용할 때에는 표현되지 않는 유대감을 함축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부 이외의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즉, 실제 상황에서 남편이 가족 안

에서 정의되는 다양한 관계를 갖느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의 발화가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를 청자로 하여금 말해진 것을 믿도록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arston(2002)에 따르면 개념적 의미를 부호화하는 어휘 항목이 실제 발화에서 표현하는 의미는 맥락과 백과사전적 배경 지식, 관련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즉, 어휘 개념은 임시적으로 화용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⁵⁾ (20)의 발화에서 '남편'이라는 어휘가 부호화하는 의미는 화자의 배우자라는 개념보다는 (22)와 같은 광의의 개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에게 배우자만이 유일한 가족일 경우라도 화자가 '우리 남편'을 사용할 때에는, 청자가 (22)와 같은 백과사전적 배경 지식과 화자의 발화는 최적으로 적합하다는 관련성에 대한 가정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발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될 때 '내'를 사용해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는 것을 기본 규칙(default rule)으로 설정하는 것은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는 것은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은 '우리'에 화자 외 다른 구성원(화자의 배우자)이 포함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화자와 화자의 아들이 유일한 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24)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원에 들어갔어.

화자가 배우자 없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24)를 발화했다면, 화자와 그 아들 간의 독점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를 사용한 것은 (20)의 경우에서처럼 '내'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내'가 아닌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우리'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화자가 의도한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때 청자가 (24)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청자가 화자의 상황을 모른다면 화자가 지칭하는 '우리'의 대상에는 화자와 화자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추론할 것이다. 둘째, 청자가 화자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화자의 발화에 가장 접근 가능한 가정을 찾게 되고, '우리'에 속하는 복수의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해 (25)가 아닌 (26)과 같은 맥락 가정을 발화 해석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15) Carston(2002)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어휘 개념이 화용적으로 조정된다고 보았다.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 있는데도 'empty'를 사용한 것은 부호화된 개념 'EMPTY'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의의 개념 또는 느슨한 개념(loose use) 'EMPTY'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i) (냉장고에 몇 가지 음식 재료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 The fridge is empty.

- (25) 아들은 화자와 화자의 배우자의 자식이다.
 (26) 아들은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손자, 조카, 형 등의 관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맥락 가정을 찾는 과정은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요하게 되지만 ‘내’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내집단에서 정의되는 복합적인 관계를 포괄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의 구성원인 화자가 또 다른 구성원인 그 아들에 대한 친밀감을 함축할 수 있다.¹⁶⁾

또한 ‘우리’는 유생물이 아닌 명사와도 함께 쓰여서 그 명사의 지칭 대상과 내집단 구성원인 화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 (27) (화자와 청자가 1:1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a. 우리 집에 갈래?
 b. 우리 회사가 크지는 않지만 내실이 있지.

김정남(2003)은 ‘우리’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은 유생물인 경우에 더 적합한 듯 보이며, ‘동네’나 ‘학교’ 같은 명사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27)의 예와 같은 ‘우리 집’, ‘우리 회사’라는 표현은 흔하게 사용되며, 이한규(2007)에서는 이를 내집단 개념으로 설명한다. (27)에 쓰인 ‘집’, ‘회사’와 같은 명사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 집단 구성원들과 공유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사들이다. ‘집’의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며 ‘회사’ 역시 사원들이 소속된 집단으로서 집단 구성원들과 공유관계를 가질 수 있다.

관련적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청자는 ‘우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 화자를 확인하고 그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화용적 추론 과정을 통해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칭 대상을 찾아서 청자가 갖고 있는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때 발화 해석을 멈추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청자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27a)를 발화하고, 화자가 청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27b)를 발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대일 대화 상황 맥락에서 쓰인 ‘우리’는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에 화자와 청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27a)의 경우, 청자가 화자와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는 배경

16) 이한규(2007)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가족의 형태가 점차 핵가족으로 변화해 가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대신 ‘내 남편’,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축소된 가족의 범위 안에서는 (20)과 (24)의 경우처럼 복합적인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유대감을 함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화자와의 일대일 관계만을 고려하여 ‘내’를 쓸 것이다.

지식을 통해 청자는 화자에 의해 구현되는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른 접근 가능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 포함되는 구성원들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청자는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일대일 대화 상황에서 청자를 배제한 채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배경 지식을 통해 화자가 의도한 '우리'의 구성원에 화자 및 화자가 사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때 화자가 사는 집의 구성원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청자는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27b)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화 상황 맥락보다는 문화적 배경 지식을 통해 화자가 의도한 '우리'의 집단에 화자 및 화자가 다니는 회사에 소속된 사원들이 포함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27)에서 청자는 '우리'를 통해 화자가 갖고 있는 '집'과 '회사'에 대한 친근감을 추론해 낼 수 있다.

(27)에서 화자가 혼자 살 때, 화자 개인이 차린 회사일 때를 각각 가정해보자. 일대일의 대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명의 청자가 있는 상황이라도 화자가 혼자 살고, 화자가 회사를 차린 경우라면 화자와 집, 화자와 회사가 일대일 관계가 된다. 이 경우 이한규(2007: 164)는 “화자만을 가리키는 단수의미로도 ... '우리'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2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지칭 대상과 화자가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지칭 대상이 내집단 구성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독점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이 경우도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는 (20)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최적의 관련성을 지향하는 화자가 논리적으로 '내'를 써야 올바른 경우에 '우리'를 쓴 것은 발화 해석에서 '내 집', '내 회사'가 쓰인 경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화자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각각 (28a)와 (29a)의 맥락 가정을 찾아내어서 추론을 통해 (28b)와 (29b)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 (28) a. 집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b. 우리 집은 내 집이며 나와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인데 갈래?
- (29) a. 회사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b. 우리 회사는 내 회사이며 나와 여러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며 크지는 않지만 내실이 있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인지 효과는 '내'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가능하

17) 이한규(2007)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내 집', '내 정원'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개인 관계를 표현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대신 '우리'를 선호해 사용하고는 있으나, '내'를 사용하는 빈도는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내’가 사용될 때는 가능하지 않는 친밀감을 추론하게 해준다.

이번에는 화자와의 독점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내 집’, ‘내 회사’가 쓰인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자. 김정남(2003)에서는 배타적으로 자신만의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아니라 ‘내’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한규(2007)에서도 독점적 소유 관계를 주장할 때에는 ‘내’만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내’는 문장의 논리 형태에 개념을 부여하는 개념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화용적 추론을 통해 화자가 의도한 지칭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 이때 ‘내’가 부호화하는 절차적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0) ‘화자라는 개체를 찾아라’

청자는 ‘내’를 듣고 화자라는 개체를 찾는 다음 관련성에 대한 기대와 관련성에 대한 의사소통적 원리를 통해 나머지 해석은 화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화자가 ‘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맥락에서 지칭하는 화자가 누구인지 청자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이다. 따라서 ‘내’가 쓰이면 ‘우리’처럼 화자가 속한 집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화자만을 찾는 다음 화용적 추론을 통해 발화를 해석하게 된다. ‘내 집’, ‘내 회사’처럼 ‘내’와 명사가 함께 쓰인 구조에서는 그 명사의 지칭 대상과 화자의 일대일 관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화자 개인만의 독점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쓰이는 것이다.

윤재학(2003)은 (31)에 쓰인 명사들의 경우 지칭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없고 오로지 화자와의 독점적인 관계만을 맺으므로 ‘우리’가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 (31)의 경우에는 오로지 ‘내’만 사용가능한 것이다.

(31) *우리 신발, *우리 돈, *우리 입 (=6c)

신발의 경우에는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만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돈도 개인 소유로 여겨지고, 입은 신체 부위로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31)에 쓰인 명사들이 ‘우리’와 함께 쓰이는 것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면 ‘우리’와 함께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화자와의 독점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된다. (32)의 예를 보자면 화자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예를 들어 피해 저축은행 앞)와 같은 물리적인 맥락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 등의 맥락을 통해 화자에 의해 구축된 집단은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2) (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

우리 돈 돌려 달라!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명사의 구조는 맥락 속에서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지칭 대상을 찾는 경우였다. (33)은 ‘우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화자가 속한 내집단에 속하지 않는데도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이다(윤재학, 2003). (33)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이 화자의 가족이라면 민희는 선생님과 인척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이는 사실에 반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화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화자가 민희의 어머니나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민희와 한 가족이라는 동일한 내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자인 민희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사용은 화자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3) (선생님이 학생인 민희에게)

우리 민희 참 열심히 하네. (= (6b))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청자인 민희는 ‘우리’의 절차적 의미를 이용해서 우선 화자를 파악한 다음 그 화자에 구현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확인해야 한다. 민희가 맥락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해서 지칭 대상을 파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그 선생님이 속한 집단이 반드시 민희의 가족이나 친척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화자와 민희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화자는 ‘우리’를 생략하고도 발화를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없이 민희만 쓰였다면 민희라는 이름을 갖는 개체들 중 화자가 지칭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지만, 화자와 민희만 있는 상황에서는 민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해 보인다. ‘우리’를 넣어서 발화를 했다는 것은 ‘우리’를 생략한 발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이때 청자가 파악하게 되는 발화 맥락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우리’의 지칭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민희에게 친밀감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의 집단일 것이며 이러한 발화는 화자가 민희에 대해 갖고 있는 친근감을 표현한다.¹⁸⁾

18)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33)의 경우, ‘우리’의 지칭 대상으로 가족보다는 광의의 집단인 민희에게 친밀감을 갖는 집단을 추정하게 된다면 그 집단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청자로 하여금 발화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처리 노력에 큰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다. 청자는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발화 맥락과 ‘우리’의 절차적 의미를 고려하여 지칭 대상을 파악하게 되는데, 4.2에서 밝혔듯이 발화와 관련된 모든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가장 접근 가능하고 청자의 주의를 끄는 최소한의 맥락 집합만을 선택해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33)에서 민희는 ‘우리’의 절차적 의미를 통해 화자에 의

그러나 (33)에서 ‘우리’가 명확한 복수의 구성원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대신 ‘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34)처럼 ‘내’를 사용하게 되면 청자는 화자를 확인하고 화자와 민희와의 독점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희가 화자만의 민희가 될 수 없으므로 ‘내’가 쓰일 수 없는 것이다.

(34) (선생님이 학생인 민희에게)

*내 민희 참 열심히 하네.

청자는 ‘내’가 쓰인 발화를 해석할 때 청자로 하여금 의도된 지칭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해석 방향으로 인도하게 해주는 언어 형태를 화자가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청자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맥락을 선택해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게 되면 해석을 마치게 된다. 그런데 청자인 민희가 발화 맥락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내’의 지칭 대상이 화자인 선생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선생님과 자신이 독점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에 대한 발화의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다. 때문에 (34)의 발화는 어색하게 들리게 된다.

또한 ‘우리’와 명사의 결합은 (35)에서처럼 명사의 지칭 대상이 화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도 사용되어서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다.

(35) (발표회장에서 사회자가 한 학생에게)

우리 학생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화자는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하는 ‘우리’의 집단에 화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를 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를 포함한 발화를 말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화자 또한 청자에게 친밀감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포함되고자 함을 청자가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결론

일인칭 복수 대명사는 둘 이상의 구성원이 포함된 집단을 지시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그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본

해 구현된 복수의 구성원이 속한 집단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며, 선생님과 민희가 친척 관계가 아니라는 배경가정을 통해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에 혈연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민희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친밀감을 갖는 대상이 구성원들로 있는 집단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화 해석 과정은 가족이 아닌 집단을 파악해야 하는 추가적인 처리 노력을 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얻게 된다.

연구에서는 관련성 이론에 의거하여 의미란 크게 두 가지 의미, 즉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대명사는 특정 연산적 과정을 지시하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언어 형태로 간주된다. 화자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의도한 지칭 대상을 올바르게 도출해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이것은 화용적 해석 과정의 출발점이 된다. 청자는 주어진 맥락을 고려하면서 관련성 원리와 관련성 이해 절차를 따라 맥락에서 화자가 의도한 해석을 찾게 된다.

한국어와 영어의 일인칭 복수 대명사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를 파악하고 그 화자에 의해 구현된 집단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적 의미는 어떠한 구체적인 개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화에서 'we'와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다양한 지칭 대상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인칭 복수 대명사가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린다면 화자 지칭 기능 없이 'we'가 쓰였거나 '우리'에 속한 사람이 화자 외에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대명사들이 갖고 있는 절차적 의미와 주어진 맥락과 사회·문화적 지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화자가 의도하는 집단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우리'+명사의 구조에서 지칭 대상과 화자와의 독점적인 관계가 논리적으로 전제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우리'가 일인칭 단수 대명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용되어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인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자는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지식과 발화 상황 맥락, 발화 해석 맥락, 화자가 이러한 발화를 하게 된 의도 등을 파악하여 화자가 의도하고자 한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본 연구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일인칭 복수 대명사의 의미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설명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Wilson & Sperber(1993), Powell(1998)에서 대명사는 절차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제안을 따라 영어의 'we'와 한국어의 '우리'의 다양한 쓰임을 관련성 이론의 인지적 관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관련성 이론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we'와 '우리'의 쓰임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관련성 이론적 관점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쓰임은 무엇이 있으며, 만약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 코퍼스를 활용한 일인칭 복수 대명사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쓰임들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향후 연구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정남. (2003).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의미학*, 13, 257-274.
-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윤재학. (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7(2), 1-30.
- 이한규. (2007). 한국어 대명사 '우리'. *담화와 인지*, 14(3), 155-178.
- 정경옥. (2005). 한국어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용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6(3), 405-421.
- Bach, K. (2004). Pragma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 L. R. Horn &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pp.463-487). Oxford: Blackwell.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 Blakemore, D. (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heny, R. (2006). Pragmatic analyses of anaphoric pronouns: Do things look better in 2-D? In M. Garcia-Carpentero & J. Marcia (Eds.), *Two-dimensional semantics* (pp. 22-3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ston, R. (2002). *Thoughts and utterances*. Oxford: Blackwell.
- Fauconnier, G. (1994). *Mental spa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mberg, M. L. (1996). *Against rigidity: An investigation of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indexic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CLA.
- Hedley, P. (2007). *Anaphora, relevance and the conceptual/procedural distin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xford.
- Ifantidou-Trouki, E. (1993). Sentential adverbs and relevance. *Lingua*, 90, 69-90.
- Kaplan, D. (1989). Demonstratives, themes from Kaplan. In J. Almog, J. Perry, & H. Wettstein (Eds.), *Themes from Kaplan* (pp. 481-56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nberg, G. (1990, June). Indexicality in contexts. Paper delivered at the Conference on Philosophy and Cognitive Science, Cerisy-la-Salle, France.
- Nunberg, G. (1993). Indexicality and deix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1-43.
- Powell, G. (1998). The deferred interpretation of indexicals and proper names.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143-172.
- Recanati, F. (1993). *Direct reference: From language to thought*. Oxford: Blackwell.

- Recanati, F. (2001). What is said. *Synthèse*, 125, 75-91.
- Scott, K. (2008). Reference, procedures and implicitly communicated meaning.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9, 275-301.
- Sperber, D., & Wilson, D. (1986/95). *Relevance*. Oxford: Blackwell.
- Wilson, D., & Sperber, D. (1993). Linguistic form and relevance. *Lingua*, 90, 1-25.

최인지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0-742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전화: (02)-710-9321

이메일: choi.inji@gmail.com

Received on April 11,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12, 2012

Accepted on June 12, 2012